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15:13>

평안하시지요?

이곳 저희가 거하고 있는 Port Elizabeth는 거의 한 달간 쉼 없이 비에, 바람에, 폭풍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어요. 최악의 날씨가 거듭되면서 남아공의 날씨에 마음이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

매일 매일 학교에서 드린 시간.....

11월 첫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덧 이곳 남아공에서의 학교 사역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들로 분주해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가르쳤던 IT 평가 시험을 10월에 치뤘고 오늘, 전교생이 참여한 어워드 시간에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증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을 받고 부모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해동안 교사들과 삐그덕 거렸던 모든 일들이 모두 잊혀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수료식이 끝이 나고 많은 부모님께서 학생들과 찾아와 가난하고 어려운 흑인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 주셨고 특히 예배 모임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며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행사중 스탭 소개 시간에 쑥스럽게 저희를 좋은 사마리아인에 비유 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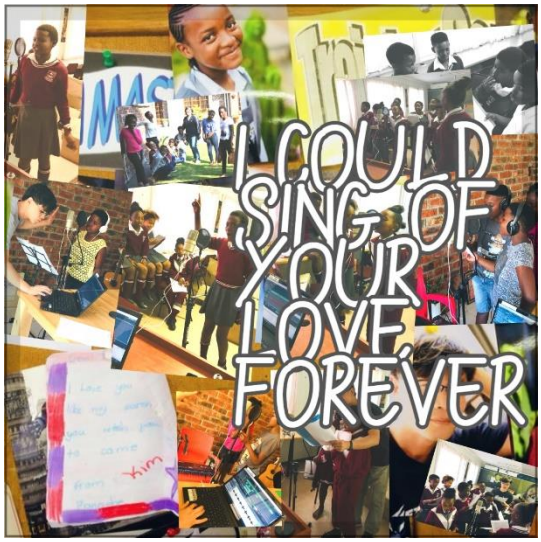
한푼 요구하지도 않고 12년동안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South Korea 선교사들이라고 칭찬을 해 주셔서 모두에게 황송한 갈채를 받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런 소개사에 주님께 한 없이 죄송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할 죄인이 되어 ... 그냥 속으로 " 주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찬양 음반을 제작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그동안 자주 불렀던 찬양들을 모아 3개월간 녹음을 했습니다. 선교센타에서 아이들과 성경을 녹음하다가 문득 찬양을 녹음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녹음을 할 시간이 부족해 많은 시간을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학교에서, 선교 센타에서 어떤 곡은 무려 10번이상 반복 녹음과 부분 녹음을 해 가며 영어 찬양이 서틀러 음치, 박치인 아이들을 교정해주며 씨름을 했었습니다.

음반을 손에 든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센터에서의 사역

이곳에서도 이런 저런 귀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일단 매년 해 오던 성탄 선물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지역 가난한 팜 스쿨 150명과, 꽈자킬레 흑인 타운 쉽 안에 있는 쟈무 학교등, 총 3백여개의 선물팩을 만들어 전달했어요.



이를 위해 함께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남아공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11월 말부터 성탄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요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울러 10월 말에는 지역 여자 선교사님들을 초대해 귀한 여 선교사님들의 교제시간을 가졌어요.

아울러 11월에는 문화 공간으로 영화 <기생충>을 센터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기독 영화는 아니지만 남아공 요하네스 버그나 케이프 타운은 한국분들 대상으로 이미 시사회가 있었지만 이 곳은 한국분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늘 이런 문화 나눔이 소홀한 것 같아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양육하던 8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요. 욕심 같아서는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었는데 몇 명에게만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교복과 가방, 핸드폰, 교재, 학용품 등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요 이 곳 뿐만 아니라 온 열방가운데 일하시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위에도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 되어 가기를 원해요.

기도제목

1. 날씨가 무척 안 좋아요 바람에 의한 새, 모래벼룩과 비염으로 고생하는 가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최근들어 강도가 많아 졌습니다 몇 일 전에는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이 권총 강도를 사역하는 학교 정문에서 만나 소지품을 모두 강탈 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